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라이프 코칭

류혜옥 (고신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외국인을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많은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에 급급하고 대학에서의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분류하면 이주노동자, 외국인유학생, 국제결혼여성, 이주민 간 결혼자, 새터민 등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수용도는 “미녀들의 수다”, “아시아 아시아”와 같은 TV프로그램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숫자적으로 적어서 그런지 외국인유학생에 관하여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연구자가 살고 있는 부산시 영도구에서는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이 정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들에게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혀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국적취득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 상담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그들의 고충, 법률, 생활정보,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에 관한 대책과 교육은 미흡하며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년도별로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40,000만 명이며 2010년까지 50,00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고신대학교만 해도 중국학생 83명을 비롯해 27개국에서 17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학업이나 정서적인 면, 복지를 위한 노력들은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노력한다 해도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겪게 되는 타문화체험과 이에 수반하는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응상의 문제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 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 역시 그 사회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적응의 문제였다. 물론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차근차근 적응하여 학위를 받고 귀국하거나 그 사회에 정주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백호주의가 강한 사회에 들어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견디다 못해 정신병만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 들이 요구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상담의 한계들로 인해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갖는 심리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복지, 딜레마 등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의 서비스의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라이프 코칭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증가배경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이 널리 알려진 원동력은 1970년대를 전후한 경이적인 경제 발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세계화를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중국과의 수교 및 문화개방으로 많은 중국 교포 및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것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형별 배경은 언어 연수, 대학생, 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그리고 박사 후 과정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입국한 후, 공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입 유형이 다양하다. 이렇듯 다양하게 국내로 유입된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엄혜경, 2003).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의 일환으로서 제시되고, 편중되어 있는 아시아권(중국, 일본, 동남아)의 학생들 외에도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변화, 다양화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가 경제에 대하여 크게 기여 한다. 현재 한국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하여 약 160,0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다. 반면 국내로 유학은 외국인 유학생 수는 40,000명으로서 국가 경제 회복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잃게 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의 국제무대 진출과 기반조성 및 유학생 교류 확대를 통한 국익 신장으로 제시했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자국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때, 그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둘째, 정부는 주요 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학생 유치기반의 확충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 전개, 민관연계의 유학생 유치체계의 확립,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학생 유치홍보, 법적, 제도적 유치장벽의 제거 등이다.

이런 주요 목표를 추진하여 정부는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유학생 정책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그 결과 ‘유학 수치 개선’에 힘쓰는 한편, ‘국가 간 상호 이해 증대 및 교류, 협력 강화’와 함께 ‘고등교육의 구조 개혁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부 노력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귀납적으로 이론이나 모델을 도출하는 근거이론(Glaser & Strauss, 1976)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논문과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한 다음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과 딜레마 등을 파악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고 두 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개방형질문을 중심으로 때에 따라서는 폐쇄형과 추적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과정동안 주제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담가이드를 작성하여 심층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로 채택된 자는 남1명(중국), 여2명(몽골, 필리핀)으로서 대학원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유학생들의 실제적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개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과의 면담내용은 녹취되고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면담은 메일로 이루어졌다.

4.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요구분석

미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 온 후 처음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겪는 것은 문화적인 충격이며,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친구(Philips, T. & Norsworthy, B, 1997)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겪는 문제들은 향수병, 음식문제, 언어문제, 의료 서비스, 경제적 문제,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계획, 우정을 발전시키는 일, 매일 매일의 문제들, 이성과의 사회적인 관계, 집을 구하는 일,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일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을 지속하는 일, 그 사회의 폭력, 인종 차별의 불편들 그리고 새로운 관습과 교육 체제에 적응하는 일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과 고충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한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타 문화체험으로 인한 불안감

타 문화체험은 그자체로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정도가 심해지면 피해의식까지 생긴다. 적응해야하는 부담으로 신체질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정서적으로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격려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Hurh & Kim(1999)은 문화적인 쇼크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허니문 단계이다. 이 기간은 외국인학생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흥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몇 주에서 몇 개월 까지도 갈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들의 유학생생활의 행복과 불행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둘째 단계는 의심과 유보의 단계이다. 허니문 단계가 지나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문화적 부적응, 언어소통의 어려움, 음식 관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학생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단계이다. 이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마음이 단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속해서 격려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계는 환멸과 절망의 단계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극심한 정서적 불안으로 어떤 학생들은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한다. 이럴 때 우정을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상태는 불안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우정을 나누고 이 단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계는 낙오와 격리의 단계이다. 이 단계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더 이상 우정을 나누기가 힘들지 모른다. 이 단계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단계는 적응과 수용의 단계이다. 여러 단계가 지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적응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역시 다소 문화 충격을 겪지만 더 이상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정을 나눈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문화적인 차이점은 많아요. 한국이 중국보다 깨끗해요. 중국 대부분 지방보다 한국이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시민들 수준도 한국이 더 높아요.

중국하고 달라서 처음엔 좀 스트레스 받았죠(드나에).

네 있어요. 한국 음식 너무 매웠어요. 한국의 중국 음식점처럼 중국 음식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너무 매웠어요.

약국도 많이 가고 두통도 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겨내자 이겨내자 그랬죠(따보).

근데 제가 한국 왔을 때, 같이 공부하는 형들, 백수예요. 같이 밥 먹으면 제가 결제하거든요? 근데 저보고 당당하게 우리 한국에서 돈 버는 사람은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전 너무 웃겨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농사해요. 다 같이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당신네 집에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양식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당연히 도와줘야 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농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하고 놓고 있어요. 그럼 내 과실, 내 양식 왜 다 줘야 해요? 기분 나쁜 게 아니요. 이 문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전체가 이런 문화예요 아니면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상길)

사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상 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끊었고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즐거움을 얻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최대한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예배도 자주 참석하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들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지만 예배 문화도 한국과 몽골이 참 달라요. 한국은 몽골에 비해서 예배가 더 엄격하고 형식과 틀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부터 계속 예배가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면도 있고요. 몽골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항상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고민과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 하고 싶어도 너무 바쁘시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끼리 단지 인사를 하고 지나칠 뿐이지 아직은 친한 사람들도 잘 없고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학교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조차 몽골어를 사용하지 않

고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또 몽골사람을 만나기 힘들니까 몽골말을 거의 안 쓰게 되고 이런 점들도 힘든 것들이 있죠(따보)

한국사람 전체 말고 일부 사람이 그런 것 좀 있죠.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자기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좀 있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일 열심히 하고, 효도 잘 하고, 우리나라 보다 좀 괜찮은. 그리고 깨끗해요. 일부 사람들이 좀 교만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특히 한국 남자, 말을 함부로 말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예의바르지 못해요. 외국인을 대할 때. 대부분 아니고요.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상길)

2) 정보의 부족

외국인이 한국의 생활에서 가장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다. 사소한 것에 관한 일상생활의 정보의 제시와 아주 중요한 정보의 입수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정보부족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애매한 상황에서도 결정하고 선택해야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원조를 할 수 있는 개인은 물론 기관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정보가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아는 거 없었어요. 한국의 역사 지리 이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현실, 현상 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고 참 힘들었던 것 말도 못합니다(타보)

3) 언어문제와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낮은 자기평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기초적인 어학실력이 되더라도 수업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강의도 부족해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대학원생들은 영어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부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므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문화일보,2003).

이 문제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한 문제일 것이고 비단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언어장벽은 기본적인 문제이다. 외국인의 출신 국이 매우 다양함에 따라 그들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상담자 또는 의사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혼란해 있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독특한 문제가 있다. 표면적인 회화는 물론이고, 공감, 수용, 직면과 같은 정신치료적인 관련성을 띤 감정에 대한 표현을 외국어로 표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의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면접에서 나타난 현상중 하나는 해외 교포의 3세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사고나 생활방식이 외국인인여서 한국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아 있어요. 말이 해결이 안 돼요. 언어문제. 한국 사람하고 싸울 때 특히 그래요. 제가 목사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요.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도 저한테 욕하고 싸운 적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수준, 유치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말을 되게 잘해요. 제가 변명할 기회를 안줘요. 자기는 못하는 것 없다고 이 사람은 뭐 못하고 뭐 못하고. 예들 들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선생님은 학교 교수님 찾아서 예쁘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 말 할 수 없자나요. 그럼 제가 답답해요. 주위 사람들은 누구 말 믿어요? 선생님 말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한국 사람하고 다툰 때 있는데. 답답한 마음을 말을 하고 싶어도 한국 사람이 더 말을 잘하니까. 해결 할 수 없어요. 외국인 유학생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한국 사람보다는 못하니까요. 제가 잘못된 거 없고 한국 사람이 잘못해도, 저 변명을 못해요. 한국 사람은 변명 잘해요(상길)

한마디도 못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차이도 몰라요. 그래서 언어 공부만 1년 정도 했어요(파보)

상담 같은 것 해보셨나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어디가야할지 몰랐고 누가 말해주어서 갔는데 말이 안 통해 답답해서 커피만 마시다 왔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말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담학 시간에 심리검사 해라해서 갔더니 중국 학생 이라고 하니 거기 있는 선생님이 나를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나와 버렸어요.

제가 진짜 답답해요. 다른 사람 믿고 저 못 믿고 이런 일 너무 많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많고, 교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영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은 말을 양보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군자. 그런 군자 만나기 힘들어요. 상대방 입장 정도는 이해해야 해요. 한국사람 두 분류 있어요. 외국인 학생 입장을 생각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조금 있어요(파보)

한국말에 한자가 많이 있잖아요. 한자가 많으니까 오히려 중국인으로서 공부하기 편하지는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 처음에는 듣기요. 이해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읽기요. ‘되지’ 알아요? 처음에 한국 와서 그 책 바로 읽었어요. 읽는 것 좋아하고, 쓰기는 좀 어려워요. 제일 큰 문제는 말하기, 말하기는 최고 약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지금 하는 거 이거 이런 거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필요해요. 저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말 많이 안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귀찮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신라대 왔을 때, 중국 사람하고 같이 안 놀아요. 저는 중국 유학생 단체 이런 거 싫어요. 왜냐면, 우리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서로 경쟁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끼리 경쟁하고, 그룹 안에서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싸움하고 욕하고 나쁜 말 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처음에 한번 가보고 아 나는 이 스타일 아니구나, 이 분위기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양파 당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놀고, 한국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기숙사 살다가 한국사람 집에서 한 7개월~8개월 살았어요. 목사님 집에서. 근데 그 목사님요 정말 대단해요. 그 목사님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멋진 남자예요. 한국사람 참 대단해요. 제가 아까 말한 사람은요, 조금뿐이에요. 전체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문제 많아요. 안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참 안 좋다 그래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다 마음에 들어 해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제가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나이도 많이 없고, 철도 없고.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그

런데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교만하고, 일시키고,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평신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여기 일도 하고 싶고, 저기일도 하고 싶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한테 힘 있게 하고. 근데 대부분 좋아요. (드나에)

4)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

유학생들은 초기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방인이라는 의식으로 인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생이지만 유학이라는 특별함 때문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여서 외로움은 가중되고 있었다.

아니요 그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예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인터넷으로 메신저나 그런 것들을 하실 능력이 안 되시고,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는데 전화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공중전화도 잘 없고, 공중전화를 찾아도 동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가 많이 생소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다들 잘 모른다고 피하고 해서 그런 점이 힘들어요. 가족들과 통화도 자주 하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외롭고, 몽골에서는 항상 가족들과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몽골에서 제가 대학을 나왔으니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제가 몽골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직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파보)

음, 기숙사에는 4명이 사는데 저랑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랑 한국인 학생 두 명 이렇게 살아요. 기숙사 분위기는 화목하고 나쁘지 않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저는 한국어가 많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상관 없지만 아프리카 학생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영어로 이야기 하는데 저도, 한국인 학생들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조금 힘든 것은 있어요. 분위기는 좋지요. 근데, 한국인 학생을 보면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대화 할 시간도 잘 없고 항상 이것저것 할 것이 많고, 제 눈에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몽골이랑 한국이랑 차이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몽골에서는 한국 사람들만큼 바쁘지 않게 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한국은 사람들끼리 너무 대화가 적고, 대신 카드 같은 것으로 해결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는 버스를 타도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카드로 찍고 들어가고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몽골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에 속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말을 많이 하지 못해서, 같이 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몽골이 참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고신대학교에는 몽골 학생이라고는 저 하나 뿐이어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사람들이 몽골을 평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이 많고 고함도 잘 치고 하는 성격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몽골 사람들에게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생길 것 같아서 항상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MT갔을 때 혼자서 고함도 치고, 그랬어요. 몽골에서는 등산도 가고 거기서 고함도 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도 어떻게 저기까지 가는지 길도 모르고 산에도 올라가고 싶어도 위험한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저에 맞게 잘 대해주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모르니까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밖에 할 것이 없죠 뭐 (파보)

웃었던 이야기를 하려니까 창피하기도 한데요(웃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웃기도 했고요, 가족들 생각이 나고, 아는 사람도 잘 없고 해서 힘들어도 누구하고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지난주에 학교 학생들이 MT를 가서 학교가 텅 비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외로움이 특히 많이 느껴져서 많이 웃었어요. 아직 몽골을 떠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고향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몽골하고 여기는 환경도 많이 다르구요(에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향친구, 대학교 친구. 근데 한국 와서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예전 보다는 많이 없어요. 혼자 외로워요. 그럴 때 무서워요. 제가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요. 우뚝증 걸리는 것 같아요.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요. 말하는 사람 잘 없고, 같이 놀아도 밤에는 헤어지니까. 하려해도 할 일이 없을 때는, 자려고 해도 잠이 안라요(상길)

실제 말하면 친구 없어요. 아 이거 말해야 되는데 친구의 뜻이 한국말과 중국말이 의미가 달라요. 한국의 친구 뜻은 같은 나이, 위에 한 살 많으면 형님 누나 동생, 근데 중국 같으면 같은 취미, 같은 직장, 같은 것이 있으면 모두 친구예요. 친구 부를 수 있어요. 언어차이, 문화차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친구 있다고 물어보면, 물론 같은 취미 가진 친구 있지요. 근데 같은 나이 친구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 21살 22살, 그때 한국 남자들 다 어디 있어요. 군대에 있어요. 제가 신라대 다닐 때, 3학년 4학년 다닐 때, 3학년 4학년 남자학생, 28살, 군대를 다녀오니까 다 저보다 나이 많아요.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친구는 잘 없어요. 같이 놀고 만나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요.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힘들지 않아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해요. 그럼 공부하고.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오늘 숙제 받았어요. 그럼 저녁에 잠이 안라요. 오늘 꼭 해야 해요. 새벽까지 다 하고 나서 편하게 자야해요. 왜냐하면 전 노는 거 좋아하니까. 놀러 가야되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그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숙제 내줘도 요약만 해요. 자기 느끼는 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빨리 해도, 보기에는 예뻐요. 근데 실제는 아무 내용 없어요. 한국 사람보다 비교 안 돼요. 한국 사람은 깊은 자기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상길)

5) 학업성취에 대한 염려

유학생들은 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문제 뿐 아니라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과연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은 자국에서는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가지 못 할 때에는 학업에 대해 매우 걱정 한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드나에)

아, 답답해요. 예를 들면, 상담학 공부할 때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자료가 있고, 우리 중국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철학은 진짜 답답해요. 중국에서 비슷한 자료 하나도 없고, 아니 이건 뭐 한국 사람도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숙제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 보면 필요한 말 같아요. 저 말 봐도 필요한 말 같아요. 단어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는데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요. 근데 기독교 철학은 단어 알아도 이해 못해요. 그 뜻이 너무 어려워요. 기독교 철학 너무 어려워요. 하기는 해요. 근데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못하면 열심히 안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상길)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를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지만, 그래도 몽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갑갑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리고 바다나 산이나 어디를 가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아직 휴대폰이 없어서 사람들과의 연락도 힘들고 해서. 제가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아서 적응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어떻게 타지 생활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아침, 공부할 때도 아무래도 그냥 대화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단어나 용어들이 책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뜻들은 알고 깨우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상담학 공부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학자들이 많아서 생소하고 발표해야하는데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대화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막히는 것이 있어서 갑갑할 때가 많아요.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몽골에 있을 때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몽골에서는 프로이드나 로저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몽골에서는 유아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피아제에 관해서 들어 봤고. 몽골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굉장히 퍼지고 있고 그것 외에는 아직 잘 모르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영역이 많아서 욕심도 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막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갑갑하지요. 더 배워서 몽골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갑갑한 것을 말할 사람이 잘 없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드나에).

5. 외국인 유학생과의 상담에서 나타나는 한계들

상담자의 측면에서는 첫째, 문화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외국의 문화와 외국인이 갖는 문화적 차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도 물론 동일한 문화에서 수행되는 상담의 응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이 문화가 다른 점을 생각하면 외국인을 위한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의 훈련과 병행해서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이를 위한 특별한 과정의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오히려 한국중심의 사고와 문화와 틀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할 것이다.

둘째, 언어적 문제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상담자의 말과 뜻이 고스란히 전달되기도 어렵다. 이는 자국민들 간의 상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데 외국인과는 더욱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충분히 상담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답자 때문에 고충을 겪게 된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 상담자를 위한 교육 또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할 행정적인 책임자의 소속이 쉽게 학교사정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신적 건강지도에 문제점이 있다(박아청,1999).

넷째, 상담의 방향성이다. 기존의 상담은 심리치료적인 성격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 상담자들의 임상훈련 등이 치료적 요소를 강조하여 수학하므로 유학생들에 관하여 초기 타국생활의 적응문제와 학업성취 등에 관하여서도 심리 치료적 접근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적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취를 돕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경청하면 될 일을 해석하고 증상을 다루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반면 유학생의 측면에서도 상담은 그 한계가 드러난다. 첫째, 개인 신변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다. 외국인은 비자문제와 생활비용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매우 불안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경제문제로 걱정을 많이 한다. 혹여 나쁜 사람을 만나 사기 당할 것을 염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기도 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누설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매우 높다.

둘째,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서 제한된 언어표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한국인 상담자가 충분히 이해해 줄지를 걱정하는 일이 많다(오세철, 1982).

셋째, 상담에 대한 기대로서 무엇이든지 이해받고 해결점을 찾거나 도움을 받겠다는 의욕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상담자도 내담자도 모두 한계점이 드러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천과 성취지향적인 라이프 코칭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6.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라이프 코칭

1)라이프 코칭의 개념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와 일의 성취에 대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고 더욱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라이프 코치라는 전문직종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기업코칭, 진로코칭, 학습코칭, 가정사역코칭, 리더십코칭, 비즈니스코칭, 경영자코칭, 셀프코칭등 코칭 붐이 일고 있다. 그 중 한분야가 라이프 코칭이다. 그러나 라이프 코칭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실정에서 아직 정형화된 방법은 없지만 매우 발전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효율적 방법이라 예상된다.

코칭은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받은 고통스러운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코치는 사람들이 비전을 세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다. 코칭은 역행적으로(reactive)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proactive)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코칭은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이다. 코칭은 약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과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코칭은 상담자-내담자 관계보다 덜 형식적이며 대등한 두 사람 사이의 파트너십에 더 가깝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나 시각 또는 지식

을 갖고 있는 동역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Collins, 2001). ‘치료적’(remedial)이 아니라 중요한 성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며 협력적 관계이며 파트너십 이다(Hargrove, 2006). 상담의 영역에서는 치료나 치유에 치중한 나머지 성취하고 변화하고 실천하는 것을 놓쳐버리기도 하지만 코칭에서는 코치와 피코치가 상호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관계요소를 활용하여 피코치와 접촉하고 더 쉽게 실천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책임과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실천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이며 학습의 성과를 보고하는 수단이 된다. 상호 협력 코칭에서 과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더 깊은 학습 효과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코칭 하는 시간은 그저 대화하는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코칭은 사람들의 정신(spirit)을 고취하고, 그들이 야심찬 목표를 세우도록 하며, 그리고 과거에 몰랐던 가능성과 행동을 위한 새로운 여지(opening)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의 사고 파트너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코치와 피코치간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즉, 코칭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라이프코칭에서의 지지와 경청

실제 라이프 코칭과정에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경청과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방법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코칭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코치가 피코치에게 문제와 목표에 맞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피코치가 자발적인 행동유발을 하도록 한 지지가 무엇이냐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칭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파트너십(협력)
- ② 도와주기(조력)
- ③ 공감(이해하기)
- ④ 가치 인정하기
- ⑤ 관심 목표 인정하기
- ⑥ 긍정적 피드백하기
- ⑦ 낙관주의로 칭찬/격려
- ⑧ 긍정적인 상호작용
- ⑨ 수용하기 (Whitworth, 2005).

그러나 실제 라이프 코칭에서 발견한 사회적 지지의 단계는 피코치의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코치 개인의 성숙도, 연령, 코칭 목적에 따라 지지단계는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라이프 코칭에서 발견한 지지의 단계는 피코치의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코치 개인의 성숙도, 연령, 코칭 목적에 따라 지지단계는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지는 정보제공에 대한 지지로서 정보와 판단에 대한 정확성과 새로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이 자신의 삶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Whitworth, 2005)고 했다. 지지라는 것은 상대방과 일이 힘들 때도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라이프 코치는 자신에 대한

자기조절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이다.

코칭 과정 중의 사례에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코치를 만났으나 코치가 업무적인 코칭 실력은 뛰어나지만 피코치 자신에 대한 존중과 공감은 느낄 수 없었을 때 코치가 오만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실행과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인내심을 잃었다고 했다. 피코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코치의 자질이 먼저 준비되지 않은 채 코칭에 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자신은 그 후로 그녀와의 코칭을 중단했다고 한다(김구주, 2007). 위의 사례에서처럼 코치의 자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3) 라이프 코치의 자질

상담에서도 상담자 자질에 대해 상담교재 첫 장에서부터 소개 하듯이 전문성과 인간적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코칭에서도 코치의 역할과 자질이 강조된다. 코치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 경험이 다양하면서도 풍부하다면 코칭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이프코치는 피코치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헌신이 요구된다.

① 인간적 자질

첫째, 자신의 욕구와 느낌에 따른 행동을 절제 할 줄 아는 자기조절능력

둘째, 미래에 성취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낙천주의

셋째, 공감적 경청

넷째, 피코치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존중 하는 것

다섯째, 창의적인 사고

여섯째, 상대와 힘든 시간일 때도 친절하게 도우는 지지자

일곱째, 희망하는 미래 상황에 대해 비전을 제시 하는 능력

여덟째,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

② 전문적 자질

첫째, 방향제시자이다.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제시한다.

둘째, 파트너십이다. 피코치와 파트너가 되어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조정하고 돕는다.

셋째, 지원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돕고 배려하며 실천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한다(강주현역, 2006).

4)코칭의 효율성

사람들에게 미래의 꿈을 구현하도록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며 자극하는 코칭 질문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코칭을 진행하며 시간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상담에서는 행동이나 감정노출과 정화작업,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전이를 사용하여 통찰을 주로 한다면 코칭은 실천을 통한 배움과 자기발견 을 돕고 코치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므로 앞에서 제기된 유학생들의 타문화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언어문제, 소외감과 외로움, 학업의 문제들을 조력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질문들의 형태와 상담과의 차이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box1 효과적인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인간으로서, 리더로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비전을 가장 완벽하게 작성하라. 당신은 그 비전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당신이 입장을 취하기만 한다면 즉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신의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기회는 무엇인가? • 예측 가능한 것과 현재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넘어 당신이 하고 싶은 ‘큰 게임’은 무엇인가? 당신은 도전할 준비가 돼 있는가? •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재창조하면서까지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표-1 코칭, 상담에 관한 경계

코칭	상담
실천을 통한 배움, 자기발견, 지속적인 실천, 행복	행동 및 감정패턴의 이해, 어린 시절, 경험, 감정노출
개인의 내적 인도와 자기발견 과정중심, 코치 질문, 고객 답 스스로 발견	내담자 설 때까지 상담자 인도 중심
현재 문제 다루면서 미래 지향적, 고객의 꿈과 원하는 것 현실로 이룸	과거 중심의 서비스로 과거에서 자유롭게 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게 함
전이 사용 금지	전이는 상담기술로 사용
왜라고 질문하지 않음	자주 왜 라고 질문
고객의 전인적 삶에 집중	내담자 전인적 삶에 집중
삶 창조에 의미 있는 도전, 꿈 실천, 변화주도 참여	내담자는 심각 복잡한 개인문제에 참여, 심각한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해줌
고객 중심, 고객이 실천하도록 함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담자 더 많이 참여
모험 정신, 실패 환영, 올바른 실패가 성공의 열쇠	내담자를 스트레스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정해주고 강화하는데 중점
저항 환영, 배움이 일어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 변화경험으로의 시각	저항은 변화경험이나 생산적으로 환영하는 한편 없어져야할 문제로 인식하기도 함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도 창조적 발견과정으로 생각	내담자가 심각한 문제 가질수록 정신 시도 심각
필요하면 상담자 소개	코치나 컨설턴트 소개
전인적인 삶에 집중	전인적 삶에 집중
신의 선물	신의 선물

출처 : [The Institute for Life Coach Training 교재.]

7. 나가는말

전 세계로부터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 한국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목표한 것을 성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제 학업뿐 아니라 초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하여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언어의 문제도 해결하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자국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센터와 취업지도와 진로지도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미미하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국에 도착한 즉시 도움을 요청 할 데가 마땅하지 않고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관을 찾아보아도 마땅하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실제 상담자를 찾는다 해도 언어의 한계와 문화적 차이의 이해 부족, 또 상담자의 언어와 기술부족과 한계로 원만한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다. 또한 상담자 자신의 상담의 접근 방식이 심리 치료적 훈련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내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연구자는 라이프코칭을 모색해 보았다. 이는 성취 지향적이고 실천적 이여서 통찰중심의 상담보다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이다. 이는 더 나아가 효과적인 선교로서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라이프코칭은 유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인 ‘나간다’는 선교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보낸다’란 선교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선교의 과업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 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세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케 한 후 양육 및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 파송하여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세계 선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혜관, 2002).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주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권장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한 불균형과 청년 엘리트층을 영입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과 더불어 상담이나 코칭분야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이프코칭은 경제적이며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코치가 되는 길도 상담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 가능하며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삼(1998).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김구주(2007). **효과적인 라이프 코칭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김화영(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인적자원부(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p.2.

- 매일경제, 사회면, 2003. 12. 16 일자
- 문화일보, 사회면, 2003. 10. 28 일자
- 박아청(199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상담의 체제. **대학상담연구**, 제10집, 73-87.
- 박은경(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선민(2003). **주한 외국인 유학생 주거의 특성 및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엄혜경(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오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박영사.
- 오승진(2009). **한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 적응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유혜(2008).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 생활 실태조사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 대학교.
- 윤성원(2000). **주한 외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이유우(2004).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국제학생회와 지역교회에서의 Team사역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이은실(2008).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 이재모(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진우(2004). **21세기 리더십은 코칭이다**. 도서출판 NCD.
- 지문선(2003).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독교관 연구** : 서울 8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한혜관(2002). **국내 외국 유학생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 Collins, G. (2001). **크리스찬 코칭** (정동섭 역). IVP.
- Greenlif, R. K(2006). **서번트 리더십 원전** (강주현 역). 참솔.
- Hargrove, R. (2006). **마스터풀 코칭** (박재원 역). 김앤김 북스.
- Hurh. W. M. and Kim, K. C (1990). **Adaptation Stage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nited**, International IMigration Review No.24, 456~479
- Philips, T & Norsworthy. B (.1997). *The world of at your Door*, Minneapolis : Bethany House Publishers,
- Richard, N.J (2006). **Life coaching skills : how to develop skilled clients**
SAGE Publications
- The Institute for Life Coach Training 교재.
- Wethinton, H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djustment to streeful life events. *Jonr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hitworth, L.(2005). **라이프코칭 가이드** (박현중 역). 아시아코치센터.

